

보성군, 지자체 최초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완판 도전'

내일 첫방...매달 넷째 주 토요일 보성차 및 농·특산물 최대 50% 할인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기원·지역 농가 온라인 통해 상품 홍보

보성군이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 24일부터 8월까지 보성차 및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매달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기획전을 열고, 보성 대표 농·특산물을 완판하겠다는

보성군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다. 보성군은 내년 10회를 맞이하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홍보하고,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했다. 보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www.bsivestop.kr)은 이달 24일 오픈하고, 매달 넷째 주 토요일(15:00~17:00) 지역 농가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구매는 일요일 저녁까지 가능

하다. 라이브 방송은 네이버 쇼퍼라이브, 보성세계차엑스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송출된다. 보성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제다 농가인 몽촌산다원, 원당제다, 청우다원, 연우제다의 명인들이 수제방식으로 만든 핫차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기타 차 제품과 지역 농·특산물은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이벤트도 준비했다. 24일 라이브

쇼퍼 라이브 보성군 특집편에서 방송 시간 내에 20만 원 이상의 보성 핫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8만 원 상당의 고급 티팟세트를 증정하고, 선착순으로 구매고객 600명에게는 1만5천 원 상당의 녹차체험 쿠폰을 제공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내 최초로 만든 지자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 지역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녹차수도 보성의 진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당제다 김영욱 대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행사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절감된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영욱 기자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논의

전문가와 주민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 실시



광양시는 지난 20일 광양 5일시장 2층 상인교육장에서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원도심의 배후 주거지인 목성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됐다.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공동체 결속으로 새로 단장하는 개성·성(형) 있는 연계거점 마을'이

라는 비전으로 △계획 개요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기본 구상 △사업계획(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은 이명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좌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병훈 LH토지주택 수석연구원은 △주거지원형의 취지에 맞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정성복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시범지구 조성, 공모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에 한국기술개발(주) 전무이사는 △유당공원 및 광양 5일시장 등 대상지 내 인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목성지구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했다. 이명규 좌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높이 산다면 토론자의 견해를 종합하고,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 도시재생과와 토론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갔다. 목성리 지역의 공모 선정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희상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목성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활성화계획(안)에 반영한 후, 광양시 도시재생 추진단 회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이달 말 활성화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5월 초 전라남도에도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 기자



고흥군, 대서면민현장 탐 제막식 거행

고흥군 대서면에서는 지난 20일 변영희 임원 등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영희주관으로 '면민현장 탐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대서면민 현장 탐은 지난 1993년 '인재의 고장, 선비의 고장 대서면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고자, 32번째 4월 20을 대서면민의 날로 지정하고 면민현장을 제정·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류남진 대서면장은 "면민이 화합하

고 단합된 모습으로 인재와 선비의 고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행복하고 잘사는 대서면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변영희장도 "희망의 땅 행복한 대서면을 만들고 선비의 고장으로 이번엔 건립된 면민현장 탐이 후손들에게 정신적 지표가 되고 면민들이 서로 화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공원·산책로 등 펫티켓 홍보

순천시는 봄 날들이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산책로, 동천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증가, 펫티켓 미준수에 따른 분쟁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펫티켓과 반려동물등록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공원·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펫티켓 등을 홍보한다. 특히 목줄미착용, 맹견입마개 미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와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

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061-749-3094)를 통해 미반환 동물을 무료로 분양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여수시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산모가 여수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은 10~20

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597만6천 원이며, 지원기준 확대로 1인당 최소 15만7천 원에서 최대 51만4천 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